

소통하는 역인의정 실천하는 보령시의회

2023년도 공무 국외 출장 보고서



보령시의회

2023년도 공무 국외 출장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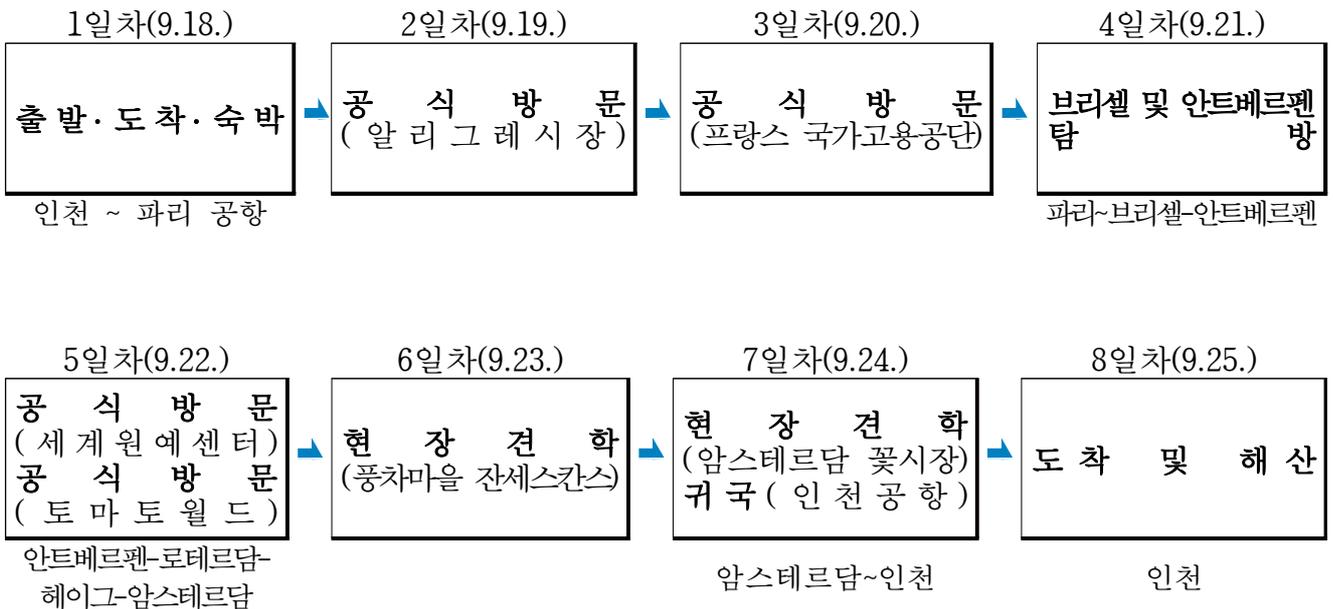
◇ 21세기 다변화되고 있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수준 높은 의정활동 능력 배양 및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국외 의정연수의 결과보고임.

1 연수방향

- 선진국의 도시재생, 농산업, 관광 분야 등 다양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 방향 제시 및 의정 역량 강화 도모
- 선진기관(국가고용기관 등)을 벤치마킹하여 시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가 될 수 있는 발전방안 모색

2 연수개요

- 기 간: 2023. 9. 18.(월) ~ 9. 25.(월) / 6박 8일
- 방 문 단: 18명 (시의원 11, 공무원 6, 보령시청 의회법무팀장 1)
- 방 문 지: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 일 정



○ 내 용

- 알리그레 시장방문을 통한 선진 도시재생분야 체험
- 프랑스 국가고용공단 방문을 통한 선진 일자리 분야 벤치마킹 및 질의응답
- 세계원예센터 및 토마토 월드 방문을 통한 스마트팜(농산업) 체험 및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방안 모색
- 네덜란드의 농장(Boerderij Polderzicht) 방문을 통한 선진 낙농업분야 지식 취득

3 연수일정 및 방문단

○ 연수 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9월 18일 (월요일)	인천	파리	-	11:55 인천출발 (비행시간 13시간 35분 소요)	-
9월 19일 (화요일)	파리		알리그레 시장	전통시장의 지속적인 활성화와 현대 문화와의 통합을 이룬 선진사례 학습 및 보령 전통 시장의 발전 방향과 전략을 모색	Olivier Corto 감독
9월 20일 (수요일)	파리		프랑스 국가고용공단	국가고용운영정책을 직접관찰 함으로서 우수정책 벤치마킹	Claire Arenales 총괄감독
9월 21일 (목요일)	파리	브뤼셀, 안트베르펜	-	벨기에 이동(기차)	-
9월 22일 (금요일)	안트베르펜	로테르담, 헤이그, 암스테르담	세계원예센터	국제 온실 원예 분야의 혁신 센터 방문을 통해 스마트팜 견학	aad verduijn 기획이사
			토마토 월드	네덜란드의 농업혁신을 대표하는 장소로 선진 농업기술 탐방	Karin Plaisier 농장대표감독
9월 23일 (토요일)	암스테르담		Boerderij Polderzicht	네덜란드의 낙농장으로 그들의 장점을 우리시에 접목시도	Familie Korrel 농장대표
			풍차마을 잔세스칸스	선진관광지 방문을 통해 우리 시와의 접목을 시도	-
			마켓홀	시장과 주거공간이 공존하는 건축물 탐방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
9월 24일 (일요일)	암스테르담	인천	암스테르담 꽃시장	세계유일의 떠다니는 꽃시장 방문을 통한 새로운 관광정책과의 접목 시도	-
			-	21:20 암스테르담 출발 (비행시간 11시간 55분 소요)	-
9월 25일 (월요일)	인천		-	16:15 인천공항 도착	-

○ 방 문 단

연번	직위	성명	연번	직위	성명
1	의 장	박상모	10	의 원	서경옥
2	의회운영위원장	백성현	11	의 원	추보라
3	자치행정위원장	이정근	12	전문위원	김왕주
4	경제개발위원장	백영창	13	전문위원	김영우
5	의 원	성태용	14	의정팀장	유병철
6	의 원	최은순	15	주무관	전범준
7	의 원	김정훈	16	주무관	한태현
8	의 원	조장현	17	공무직	박자영
9	의 원	김재관	18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4 주요활동

□ 9. 19. / 2일차

알레그레시장 견학

○ 방문지 주요내용

알리그레 시장은 프랑스 파리의 12구에 위치하며, 프랑스의 전통적인 장문화와 현대 도시의 분위기가 어우러진 특별한 공간이다. 18세기부터 시작된 이 시장은 파리의 중심부에서 신선한 식재료를 찾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목적지로 자리매김했다.

시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실외에서 운영되는 개방형 시장으로, 여기에서는 다양한 식재료, 신선한 과일, 채소, 고기, 생선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다른 한 부분은 “Beauvau“라는 실내 시장이다. 이곳에서는 고급 육류, 치즈, 해산물 등이 있다.

이 시장은 단순한 구매의 장소를 넘어, 지역 사회의 중심지로서 기능한다. 알리그레는 파리 시민의 일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적 교류의 중심이 되기도 한다. 이곳에서는 주민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작은 행사나 공연도 종종 열린다.

또한 알리그레 시장은 그 주변의 카페, 레스토랑, 장인 상점들과 함께 도시의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방문객은 이곳에서 진정한 프랑스 음식의 맛을 체험하거나, 파리의 예술가들이 제작한 독특한 제품을 발견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알리그레 시장은 오랜 역사와 함께 발전하며 프랑스의 전통적인 장문화의 본질을 오늘날에도 지켜나가는 공간이다. 이를 통해 파리의 역사, 문화,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다.

- (안 내) Olivier Corto 감독
- (내 용) 전통시장활성화(도시재생) 방안 모색



▲ 알레그레 시장 정문 앞에서

질의사항

- Q: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 A: 물건의 양이 아닌 질을 높이고, 손님과 주인과의 유대관계를 더욱더 중시해야한다.
- Q: 요즘 인터넷 쇼핑의 발달로 시장을 직접이용하지 않는데 프랑스는 어떠한가?

- A: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야 한다.
- Q: 구체적인 방안은?
- A: 전통시장 상인 또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직거래를 시도하여야 하고 유기농 식품 판매에 더욱 더 힘써야 한다.

□ 9. 20. / 3일차

프랑스 국가 고용공단 방문

○ 방문지 주요내용

Pole Emploi는 프랑스 정부 산하의 공공 고용 서비스 기관이다.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국립 고용 기관(APNE)과 산업 및 상업 고용 협회(Assedic)의 합병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두 기관은 각각 일자리 중개와 실업급여 지급을 책임지고 있었으나, 서비스 통합을 통해 더 효율적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현재 2023년에는 프랑스 전국에 위치한 896개의 구직센터에서 5만 8829명의 직원이 구직자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Pole Emploi는 실업자나 구직자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국민 외에 합법적인 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게도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실업자에게는 실업급여, 채용정보, 직업 훈련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고용주의 경우 적합한 인력을 찾을 수 있도록 채용 공고를 등록하고 필요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그리고 인사 채용과 관련된 여러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그뿐만 아니라 프랑스 내 실업률을 관리하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특히 젊은이나 중장년 실업자,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다양한 직업 훈련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직업 기술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안 내) Claire Arenales 총괄감독
- (내 용) 선진국의 일자리분야 벤치마킹



▲ 프랑스 국가고용공단 로비에서

소개 및 질의사항

○ (기관 소개-요약)

- 우리는 프랑스의 일자리 중개사업과 실업급여 등의 임무를 맡고 있는 기관이다. 우리의 직원은 59,191명이며 896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다.
- 우리고용공단의 서비스 만족도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83.5%이며 우리의 구성은 1명의 대표이사과 19명의 이사진으로 되어있다.
- 우리의 임무는 구인구직활동을 돕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러기 위하여 프랑스 고용시장을 수시로 확인하여 프랑스 정부와의 고용정책을 협력하는 것이다.

○ (질의 응답)

- Q: 보여주신 자료에 계절적 실업급여라는 것이 있던데 무엇인지?
- A: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일하여야 하지만, 대표적으로 예술가 같은 사람은 계절에 따라 일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있다.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며 이들은 500시간을 일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 Q: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 쪽에서 구인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가?
- A: 대기업에서 구인을 신청하는 경우는 잘 없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에 대한 공급(일자리)보다는 수요(일자리를 원하는 사람)가 많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적절한 직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구하는 경우가 있다.
- Q: 이민자 또는 불법이민자들이 국가고용공단의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 A: 합법이민자는 프랑스인과 똑같은 서비스를 받는다. 불법이민자에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많은 피난자에 대하여는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Q: 한국은 출산율이 낮아서 문제인데, 국가고용공단에서 혹시 출산율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가?
- A: 없다.(다른 공공기관에서 한다) 다만 출산을 한 고용자가 보육기관을 쉽게 찾도록 하는 일은 우리가 한다.
- Q: 아까 설명해주신 자료에 직업훈련을 받는 청년이라는 표현이 있던데 프랑스에서 청년의 나이가 몇 살인가?
- A: 18세부터 2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하고 그들에게 지원을 해준다. 장애인의 경우는 30세까지다.
- Q: 프랑스는 청년이 일자리를 가질 때 정부차원의 지원과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둘 다 있는가? 자격요건은?
- A: 둘 다 있다. 자격요건 또한 동일하다.
- Q: 창업을 할 때 어떤 지원을 해주는가?
- A: 세금감면이나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창업교육을 실시한다.
- Q: 혹시 창업 시에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가?

- A: 없다.
- Q: 지원해주는 돈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 A: 지원금에 대한 사전감시(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사후감시(정산과정)을 통해서 한다.
- Q: 프랑스의 고용정책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취업성공률은 얼마나 되는가?
- A: 80프로 이상이 취업하거나 창업에 성공한다.
- Q: 청년들의 대도시 이주현상을 막을 수 있는 정책에도 혹시 공단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있는가?
- A: 소도시의 숙소의 월세를 싸게 해주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 Q: 청년들이 3D 업종에 취업했을 때, 더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는가?
- A: 없다. 우리는 3D업종의 임금이 높기에 다른 지원책은 없다. 다만 최근의 기피업종인 호텔리어, 건축업 등의 몇몇 직종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금이 지급된다.
- Q: 혹시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있는가?
- A: 농토나 가축을 살 때 이자율감면이나 지원금을 준다.

□ 9. 21. / 4일차(이동일)

그랑 플라스 현장견학

○ 방문지 주요내용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광장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다.

○ 느낀 점

브뤼셀 한가운데 복합 쇼핑센터 및 여러 상점과 카페가 다른 문화유산과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보며 우리 전통시장도 이런 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조금 더 사람들이 찾고 싶어 하는 시장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 9. 22. / 5일차

세계원에센터 방문

○ 방문지 주요내용

- World Horti Center는 국제 온실 원예를 위한 지식 및 혁신 센터입니다. 비즈니스, 교육, 연구 및 정부가 공동으로 혁신하고, 연결하고, 영감을 주고, 지식을 공유하는 선도적인 플랫폼이다.
- 매년 World Horti Center에는 원예 분야의 연결 지식 및 혁신을 찾고 있는 25,000명의 국제 전문가가 방문한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식량 공급과 세상의 녹색화에 기여하고자하는 당사자들을 연결한다. 선도적인 원예 회사와 혁신이 연중 내내 열리는 무역 박람회에서 선보인다. 여기에는 기술, 공급, 화초 재배 및 식품 원예가 완벽하게 반영되어 있다.
- 세계원예센터는 혁신을 지속하고 국제적 분야로서의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 연구원, 기업가 및 다양한 교육 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38개의 온실 부서가 있는 최첨단 연구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World Horti Center는 글로벌 인재를 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선도적인 대학과 협력한다.

○ (안 내) aad verduijn 기획이사

○ (내 용) 선진국의 스마트팜 견학 및 관광자원으로의 활용방안 모색



▲ 세계원에센터 앞에서

소개 및 질의사항

○ (기관 소개-요약)

- 네덜란드는 좁은 국토에 비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효율적인 원예 산업(원예에 식품도 포함함, 대표적으로 토마토)을 통해 먹거리를 공급한다.
- 기계화된 시스템으로 재배하며, 드론으로 배송해충도 잡고 배송도 한다.
- 좁은 면적의 농장에 몇 개의 층을 만들어(인도어팜), 층마다 토마토 등을 재배하며, 그러기에 줄기식물을 주로 재배한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 유지를 위하여 온도와 습도 등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최근에 유럽에서는 화학 농약을 줄이려는 추세가 있다. 우리 또한 통제된 이런 스마트 팜을 통해 농약을 안 쓰고 재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 겨울에는 태양광이 충분하지 않기에 지열 및 천연가스를 이용해 온도조절을 한다.

○ (질의 응답)

- Q: 원예센터를 통해 청년들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 농사인의 지원금이 있나?
- A: 없다. 우리는 교육만 해준다.
- Q: 토마토의 수경(교배율)은 얼마정도 되나?
- A: 우리는 100프로의 수경율을 자랑한다.

토마토월드 방문

○ 방문지 주요내용

토마토월드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네덜란드의 농업 혁신을 대표하는 장소로, 네덜란드 토마토 재배의 깊은 역사와 함께 혁신적인 온실 원예의 가치를 강조하는 체험 센터와 현장 실험실로 구성되어 있다.

방문객들은 지식, 혁신, 그리고 기술이 세계 식량 문제의 해결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직접 체험 할 수 있다. 특히, 데이터 기반 자동화 재배 및 로봇 기술 등의 최첨단 농업 기술을 만나볼 수 있으며, 이 기술들을 통해 어떻게 현대 농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향상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건강하고 맛있는 제품이 재배되는지 목격할 수 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온 80여 가지가 넘는 토마토 품종 중 50종류의 토마토 시음도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색상, 크기, 맛의 토마토의 풍부함을 직접 감상할 수도 있다.

토마토월드에는 단순한 전시와 체험의 장소가 아닌, 국제적인 연구와 교육의 중심지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학생, 농업 전문가, 기업가뿐만 아니라 정책 입안자나 해외 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배우며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농업 혁신의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다. 토마토월드에는 이러한 전통과 혁신의 중심지로, 미래의 식량과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그 방향성을 세계에 제시한다.

- (안 내) Karin Plaisier 농장대표감독
- (내 용) 선진국의 스마트팜 견학 및 관광자원으로의 활용방안 모색



▲ 토마토월드 앞에서

소개 및 질의사항

○ (기관 소개-요약)

- 우리의 면적은 16헥타이며 우리의 목적은 우리 농가의 토마토 재배를 잘 하는 것뿐만 아니라, 토마토를 어떻게 잘 기르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주변의 1,500개의 토마토 농가들이 우리의 조언을 받고 있다.
- 목적이 연구기관이기에 많은 후원금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다.
- 퇴근 토마토 농가의 추세는 기업체는 줄지만 하나하나의 업체의 소득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 따라서 우리를 포함한 주변의 많은 농가들이 데이터 기반으로 한 컴퓨터 제어를 통해 재배를 하고 있다.
- 해충의 관리는 우리는 조금 특별하게 하고 있는데, 해충의 천적인 곤충을 농가에서 키워서 농약 없이 토마토를 해충에게서 보호하고 있다.
- Ocap이라는 회사의 지하 에너지 공급 망을 통해 여름에 남는 열을 지하에 저장하여 겨울에 사용하고 있다.

○ (질의 응답)

- Q: 우리가 방금 세계원예센터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말하는 인도어 팜을 토마토 월드도 사용하고 있는가?
- A: 아니다, 우리는 온실만을 사용한다.
- Q: 지하 에너지 공급망의 깊이는 어느 정도인가?
- A: 100미터 밑으로 뚫어서 에너지의 손실을 많이 줄이고 있다.

□ 9. 23. / 6일차

Boerderij Polderzicht(낙농장) 방문

○ 방문지 주요내용

Boerderij Polderzicht은 가족농장으로 1987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 새로운 시설을 지어 운영 중이다. 축사는 총 2채로 축사 한편에는 송아지들을 위한 시설이 따로 있으며 총 20헥타의 소들을 먹일 농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시스템과는 다르게 원형으로 된 착유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선진화된 교배 시스템을 통해 3개월 간격으로 소들의 출산을 하고 총 11마리를 출산한 소도 있다. 농장 입구에는 자기들이 만든 치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가지고 있다.

○ (안 내) Familie Korrel

○ (내 용) 선진국의 농축산분야 벤치마킹



▲ 농장의 초원 앞에서

질의 응답

○ (질의 응답)

- Q: 1마리 당 하루에 몇L의 착유를 하는가?
- A: 1마리 당 하루의 28L를 착유한다.
- Q: 1L당 얼마에 판매하는가?
- A: 1L당 45센트(약 600원)에 판다.
- Q: 여기 농당은 원유만 파는가? 아님 가공품도 판매하는가?
- A: 주로 원유를 판매한다. 간단한 가공품은 농장앞에 무인 판매기에서 판매하고 있다.
- Q: 우유 냉각기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
- A: 1만 6,000리터를 한번에 보관할 수 있고 우유를 3일 간 냉각해서 가공업자에게 판매한다.
- Q: 냉각시설의 정전을 대비한 방안이 있는가?
- A: 정전 때를 대비해 자체 발전기를 소유하고 있다.
- Q: 1마리 당 착유하는데 얼마정도 걸리는가?
- A: 5분정도 걸린다.
- Q: 몇 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는가?
- A: 180마리의 소를 방목해서 키우고 있고 한번에 26마리의 소를 착유할 수 있다. 따라서 2시간정도면 모든 소의 착유가 가능하다.
- Q: 혹시 농장규모에 따른 키우는 소의 숫자의 제한사항이 있는가?
- A: 네덜란드는 1헥타 당 2.5마리를 사육할 수 있다.

1. 전통시장의 선진화(도시재생) 방안 모색

- 이번 연수에서 방문했던 알레그레 시장은 프랑스의 오래된 전통시장이다. 이 시장은 주변의 카페, 레스토랑, 장인, 상점등과 함께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
- 우리도 대천시장 및 한내시장 등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기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시장자체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시장 주변의 분위기 조성(사람들이 모이게 만드는)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
- 특히 안내자였던 올리버 감독과의 질의를 통해, 최근의 전통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양보다는 질, 그리고 손님과 주인의 유대관계 중요

2. 일자리 정책 활성화 방안 모색

-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하는 프랑스 국가고용공단 방문
- 선진화된 일자리 정책을 살펴보고 질의하게 되는 기회였고, 특히 사후관리보다는 사전교육에 더욱 더 많은 정책을 펼치는 방식
- 896개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83.5%에 달하는 서비스 만족도를 유지하는 것이 놀라웠으며 우리 보령시도 더욱 더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며 서비스 만족도에서도 부족하지 않은 정책을 추진

3. 선진 농축산업분야 탐방 및 우리 시와의 접목

- 네덜란드의 선진 스마트팜 방문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의 신기술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기계화된 인도어팜 방문을 통해 탄소중립 및 농약사용을 줄이며 생산량은 늘려가는 기술
- 방문을 통해 가축을 사육하는 방법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으며, 원형 착유 시스템을 사용하여 생산량을 늘리고 가축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

4. 선진 관광분야 탐방 및 발전방안 모색

-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의 중앙역을 중심으로 한 시장 및 점포, 그리고 거기를 찾아오는 관광객을 보면서 우리도 대천시장 자원을 이용한 관광산업을 모색
- 스마트팜과 같은 장소를 단순히 연구단체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연수에서 우리가 방문했던 것처럼 관광자원으로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기에, 우리도 단순히 대천해수욕장 관광자원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우리 시의 모든 시설 및 자연이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며 관광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

